

## 선출제 논의 어디로…대행 체제 불가피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가 2차 결렬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지난 9월 17일 조인원 총장의 차기 총장 선출제 관련 공식 발표를 둘러싼 학내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우리 학교 구성원 4주체가 모두 학교법 인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가 학생·교수·직원·동문과 법인·대학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4선 불출마 의사자를 재차 밝힌 조인원 총장은 지난 9월 17일 총장 선출제 논의를 앞으로 법인이 아닌 대학이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법인과 우리학교 구성원 4주체 대표들은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총장 선출제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차기 총장 선출제 관련 언급을 일제 피하던 조인원 총장이 이와 같은 입장을 구성원에게 밝힌 것은 올해 11월 23일로 예정된 임기 만료를 불과 68일 앞둔 시점이다.

법인 공영일 이사장은 지난 9월 10일, 조인원 총장과의 사전 면담에서 차기 총장 선출제 문제를 대학이 직접 맡겠다는 조인원 총장의

재개 10일 만에 2차 결렬 사태로 치달은 총장 선출제 논의 법인 “앞으로 대학이 나설 것”vs 구성원 “사실상 일방파기”  
조 총장 임기 말료 두 달 앞에서 원점 돌아간 총장 선출제 논의  
총장 공석 위기론 확산 … 1차 권한 대행은 서울캠 부총장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9월 13일 구성원 대표단과의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에서 공영일 이사장은 더 이상 우리학교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이사장이 아니다.

공영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법인 조여원 상임이사와 법인총장선임소위원회 박찬범, 유명철, 장현수 이사 등 모두 5명의 법인 이사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사퇴 데드라인을 지난달 20일로 못 박았으나 공영일 이사장은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법인은 공영일 이사장의 사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 측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의 역할은 앞으로 대학 당국에 있지만 총장 선출제 개정 권한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공석은 차기 총장 선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인원 총장의 9·17 선언과 관련

동성명을 통해 “총장 선출제 논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공영일 이사장은 더 이상 우리학교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이사장이 아니다. 공영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법인 조여원 상임이사와 법인총장선임소위원회 박찬범, 유명철, 장현수 이사 등 모두 5명의 법인 이사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사퇴 데드라인을 지난달 20일로 못 박았으나 공영일 이사장은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법인은 공영일 이사장의 사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 측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의 역할은 앞으로 대학 당국에 있지만 총장 선출제 개정 권한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공석은 차기 총장 선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경희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장 공석 시 서울캠퍼스 부총장이 일차적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해서는 “8월까지는 조인원 총장의 4선 문제가 결부돼 있어 총장 선출제 논의에 대학 당국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 총장이 4선 불출마 의사자를 명백히 밝히면서 대학 당국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법인과 구성원 대표의 지난 논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과행을 거듭하자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 총장 선출제 개정 무산으로 부상했던 총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9월 말로 유력하게 점쳐졌던 총장 선출제 개정 데드라인도 2차 결렬 사태로 무산되자 총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총장 선출제 논의 관계자는 “총장 선출 제도 마련이 자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총장 공석 상황이 명백하다”며 “이에 따른 권한 대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경희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장 공석 시 서울캠퍼스 부총장이 일차적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 베일 벗은 공대 부속건물 30억 사업비, 19년 말 완공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국제】 공간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과대학(공대)이 부속건물 신축을 자구책으로 내놓았다. 부속건물 신축은 첨단강의실 조성, 토론공간(오픈랩), 휴게실 등 주로 교육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 중이다. 부속건물은 공대 앞 잔디밭 위에 위치하며, 약 3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지하에는 200여 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 1개를 포함하고, 지상 1층은 면적 250 평 내외로 건축될 전망이다. 부속건물이 높아지면 기존 공대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지상 1층의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재정확보와 건설 관련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착공은 2019년 중반에 시작하여 그해 말 완공 예정이다. 공과대학 임성수(기계공학) 학장은 “부속건물은 경희대학교 70주년과 공과대학 50주년을 기념하는 건축물이다”며 “특히 내년 12월이 공과대학 설립 50주년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준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확보는 공대 구성원 및 동문, 외부 기업으로부터 모금활동을 하고, 공대 소유의 자금 일부를 합쳐 확보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모금 활동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대 부속건물의 개념설계는 완료됐고 상세설계 단계를 밟고 있다. 개념설계는 설계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나 기능 상 간과한 점은 없는가 등을 검토한다. 상세설계는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최적 안을 작성하는 단계를 뜻 한다. 이 단계를 마친 후 건설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거치면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부속건물 신축 계획은 공과대학 교수의회, 동문회, 학생회 등 공대 구성원에게도 공개돼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현재 총장 보고와 대학본부로부터 추진 허락을 받은 상태이다.

부속건물 신축 계획은 지난 2017년 2학기 공과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 임 학장이 직접 제안했다. 그후 건축학과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안건을 완성했다. 건축물 제안과 계획 단계에서 SPACE21의 도움 없이 공과대학 독자적으로 이뤄졌다.

임 학장은 “공과대학은 교육 공간이 열악하고 시설도 너무 오래되어 만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팀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부속건물을 계획하게 됐다”며 건축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임 학장은 “과제 제안했던 신공학관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부속건물의 규모가 너무 작다”

며 “본질적인 공간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건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공학관의 신축은 공식적으로 연기된 상태이다”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재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신공학관 건축은 SPACE21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예정이다.

현재 부속건물의 임시 명칭은 ‘파빌리온’이며 추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후마 암 병원  
10월 5일 개원

지난 5일 진행된 후마니타스 암 병원 개원식을 통해 경희 의료원 임영진 원장은 “암을 넘어선 삶”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물리적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정서적 치료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서연, 양여진 기자 clcl@khu.ac.kr

## “중간고사 언제부터야?”, 궁금한 점 쿠봇에게 물어보세요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Info21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이 도입된 민원응대 서비스인 ‘쿠봇(KHU-BOT)’이 오는 11일부터 공식 오픈한다. 현재 학교 통합로그인센터 우측 하단에 있는 쿠봇 캐릭터를 통해 테스트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앱)도 테스트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개시된 쿠봇 1단계 사업은 교직원 위주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쿠봇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다. 정보처는 학생이 학교 각 부처

에 자주 묻는 질문이나 민원에 대해 보다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자 쿠봇을 만들었다.

쿠봇은 정보처가 입력해둔 질문과 답을 스스로 생각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찾아준다. 현재 정보처는 부서별로 많이 받는 질문을 받아 수시로 쿠봇에 입력해두며, 사용자의 질문과 쿠봇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중이다.

쿠봇은 건물의 위치, 편의시설, 버스정보, 학교 주변의 식당이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에도 답변한다. 이에 더해 쿠봇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업무 시간 외에도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은 음성 채팅 서비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쿠봇은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일상 생활 언어를 형태 분석, 의미 분석, 대화 분석 등을 통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과대학 어떻게 가야해?”, “공과대학 어디로 가?”, “공과대학 가는 길 알려줘.”와 같은 똑같은 질문의 여러 형태를 이해하고 같은 질문으로 받아들여 답을 한다.

쿠봇과 같은 인공지능 민원응대 서비스는 우리학교가 최초는 아니다.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 성균관대의 ‘킹고’ 단국대의 ‘다나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쿠봇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알파고형 인공지능이다. 예를 들어, 쿠봇에 ‘공과대학’이라고 질문하면 공과대학으로 가는 길에 대한 답변을 줄지, 공과대학에 대한 설명을 줄지, 공과대학 학생식당에 대해 설명을 줄지 스스로 생각한다.

정보처 신희정 팀장은 “ку봇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똑똑해지는 성장형 인공지능이다”며 “ку봇을 도와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촉구했다.

정보처 신희정 팀장은 “ку봇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똑똑해지는 성장형 인공지능이다”며 “ку봇을 도와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촉구했다.

## 알림

【정정 보도】 지난 9월 17일 발행된 대학주보 제1638호 1면,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 수업 강사 교체 요구’ 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에 기사를 정정합니다. 대학주보는 시각디자인학과 전 학생회의 자료를 토대로 김형석 교수의 정직처분 사유가 ‘실험실습비 사취’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정계위원회 판결문 확인 결과, ‘실험실습비 사취’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직처분 사유가 ‘실험실습비 사취’라는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부족한 사실 확인으로 인해 당시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사과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린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대학주보는 사실관계 확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강화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문가 칼럼

4차 산업혁명은 청춘의 상상력이다  
최상진(국어국문학) 명예교수 7면



## 시선

## 사설

## 다함께 어우러지는 '대동' 빠지는 이 없이 화합하기

올해도 가을축제가 시작된다. 1956년 10월, 우리학교 개교 7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제1회 대학제'는 대학 축제의 모태가 됐고 '대동제'로 이름을 바꿔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반세기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축제이건만 이번 축제는 어느 때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양 총학생회가 최초로 합동 축제를 기획한 것이다.

학생 개개인이 상대 캠퍼스의 수업을 교차수강하거나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하는식의 개인적 차원의 교류는 있었을지언정, '경희'라는 이름 아래 하나된 구성원들이 한 자리 모여 즐길 수 있는 장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마련된 이번 축제, MasterPeace, (경)희대의 걸작이라는 이름까지도 그 센스가 좋다. 60여 년도 전, 첫 대학제를 앞두고 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재학생 각 개인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그 참된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다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온전한 학생문화로서의 축제, 실로 '대동제'라는 명칭에 어울린다. 그리고 2018년 가을에 와서야 양 캠퍼스 학생은 (경)희대의 걸작을 통해 실로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런 즐거운 축제를 앞두고 노파심에 몇 마디 말을 보태보고자 한다. 바로 진정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함이다. 축제 때면 으레 주점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곤 한다. 시비나 말다툼부터, '술기운에'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공부하던 학우를 '헌팅', '번호 따기' 혹은 '어떻게 한 번 만나볼' 대상으로 인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외자지껄한 주점의 한 구석에서 피해자들은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켜야 했을 것이다. 각종 사고와 범죄는 '책임감 있는 지성'으로서 대학생이 지녀야 할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린다.

축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Fair'는 라틴어 'feriae'에 뿌리를 둔다. 이는 '일 하지 않는 날'이라는 의미라는 데, 학내 청소노동자들은 축제 기간이 가장 바쁘다. 청소노동자들은 평소보다 많은 각종 쓰레기, 담배꽁초, 토사물까지, 즐거움이 지나간 신새벽에 캠퍼스를 정리한다. 다음 날도 자식 같은 학생들이 학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돈하는 것은 늘 이들의 몫이었다. 축제를 지원하는 관계 부서 직원들의 노고도 마찬가지다.

다 좋다. 축제는 학내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끄럽게 즐기며 동료들과 청춘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니까. 노곤하고 피로한 청춘이 온전히 자신들의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니까. 그러나 기왕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시작을 준비했다. 그렇게 마련된 걸작의 자리에 빠지는 이가 있다면 섭섭할 것이다.

60여년 전 주창한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우리의 축제가 간직해야 할 본연의 가치다. 대학제에서 시작된 대학가 축제가 빠다 박은 듯 라인업과 음주를 강조하는 '클리셰'로 점철된 지금, 양 캠퍼스 총학이 함께 준비한 이 축제가 또 다른 축제의 의제가 되어 다음 반세기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 축제를 즐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 대학은 지금

## 공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학생사회

안나연 기자 na@khu.ac.kr

이화여대 동아리연합회(동연)가 학생 자치공간 확충을 요구하며 학생문화관 회의실을 점거했다. (동연, 학문관 503호 점거해 공간 확보 요구/이대학보, 2018.10.1.) 동연은 대학본부 학생처가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점거하고, 학생 자치 공간이 부족함을 주장했다. 이어 '회의실을 동아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연의 점거로 학생처 소속 학생상담센터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학생처는 학칙 56조, '학생운동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동연이 무단점거를 지속하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대 장애학생간담회가 개최됐다. (2018 2학기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건대신문, 2018.10.1.) 학생복지처

## 만평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양여진 기자

## 이 주의 주제 - 대학원생 조교

## 노동을 노동답게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대학원생 조교들은 지시를 받아 일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다. 업무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보조'라는 어사페만 들이대면 눈치껏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처지다. 노동자가 아니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 연차,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노동자의 권리들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올해 노동절(5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기념 메시지를 시작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동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어느 한 곳 인간의 노동 없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 헌법이 노동을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한 이유다. 노동은 개인과 사회의 존속을 떠받쳐 주는 기둥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한국에서, 노동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사실은 자못 감동적이다. 그러나 대학이 굴러갈 수 있게,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

자 대통령의 메시지는 뒷맛이 씁쓸해졌다.

혹자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둔다 될 일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부리려면 정해진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다.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예외는 물 컵에 떨어뜨린 잉크 방울처럼 퍼져나간다. 남의 떡은 그림 속에 있는데 내 떡은 소반 위에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결국 모두가 그림 속 떡만 보고 앉아 있는 세상이라면 어찌 떨어진 떡고물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아사리판'이 벌어질 것 아닌가.

밤늦게까지 통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한 전직 조교는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대학원을 벗어났지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후배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를 포함해 이번 사례 당사자들 중 실명을 실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독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청 때문이었으나 나중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름을 밝히도록 설득해볼까 했지만 '난처한 부탁'이라면 신물이 날 그들에게 할 짓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의 말처럼 그들까지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대학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총학생회 등이 참석해 장애 학생과 대화를 나눴다. 주 안건은 장애학생지원센터 공간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 요구, 수업권 보장 논의였다. 장애학생도우미가 수강신청에 실패하면 장애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수업자료 사전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지적됐다.

서강대 총학생회(총학) 강법석(화학공학 2014) 회장 탄핵 총투표가 진행됐다. (강 총학생회장 탄핵안 총투표 실시/서강학보, 2018.10.3.) 개천절을 제외하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사흘 간 강 회장의 직무 유지 여부와, 탄핵안이 부결시 총학 업무 진행 여부에 대한 총투표가 진행됐다.

정부의 일회용 컵 규제에 따라 고려대 학내 카페 역시 판매 전략을 달리 하고 있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 강화, 달라진 학내 카페/고대신문, 2018.9.18.) 테이크 아웃 전문점을 제외한 교내 카페 10곳 중 9곳이 일회용 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회용 컵 구매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회용 컵 쓰레기 배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일각에선 다행용 컵의 세척에 의문을 표하며 위생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연세대가 다양한 캠퍼스를 두는 것에 대한 논란을 겪고 있다. (두 캠퍼스 이야기/연세춘추, 2018.10.1.) 연세대 신촌캠퍼스는 본교, 원주캠퍼스는 분교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김용학 총장이 원주캠퍼스 학생에게 보낸 메일에 "중복화과 해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one university, multi-campus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캠퍼스 통합 담론이 아닌지 대학본부에 항의 메일이 벗발치고 있다. 신촌캠 이창하 기획처장은 "김 총장의 장기적인 비전일 뿐, 항의 메일의 내용처럼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양대에서 경미한 학생 징계 제도의 처벌 정도를 두고 "솜방망이" 수준"이란 비판이 일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학생 징계 시스템 개정 논의해야/한대신문, 2018.9.17.) 지난 8월 30일 미성년자 나체 사진을 유포한 학생에게 '유기정학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학교 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등은 처벌강도를 비판하며 징계의 재심을 요구했다.

## 몰락한 9월의 봄

## 세시봉

최명규 (편집장)



지난 9월 흥의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에 이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 대학 모든 구성원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위한 총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은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의지를 '9월의 봄'으로 조명했다. 올 여름 우리대학에서도 '9월의 봄'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이 가시화됐다. 학생, 교수, 직원, 동문 우리학교 구성원 4주체 모두가 사상 처음 대학의 민주화라는 한 뜻에 목소리를 모았다. 구성원 4주체가 민주적 총장 선출제 도입에 앞장섰던 이유는 우리대학 민주주의 실태와 직결된다. 학원의 민주화라는 교훈이 무색하게도 우리학교를 대표할 총장은 범인 이사회가 내부 의결을 거쳐 단독 선임하는 범인 재적적 구조다.

내홍을 겪으면서도 9월에 재개된 총장 선출제 논의 테이블에 예상치 못한 활동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이 돌연 총장 선출제 논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범인은 앞으로 범인이 아닌 대학이 총장 선출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방 파기기에 가깝다. 그 원인이 조인원 총장에게 있다는 범인 공영일 이사장의 발언은 활동함을 더한다. 조 총장이 지난 7월부터 이어왔던 총장 선출제 논의를 파기에 이르게 한 시점은 지난 9월 17일이다. 총장 임기 만료가 불과 68일 남은 시점이다. 3선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총장 선출제 관련 언급을 일제 하지 않던 조 총장이 돌연 논의에 뛰어든 의도에 진정성마저 의심된다. 왜 지금인가?

지난 2014년 11월 27일, 조 총장의 3선 연임이 결정되며 밀실 선임 논란이 일어났다. 조 총장은 취임 후, 절차상 미숙한 점을 인정하며 총장 선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이사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4년이 다 가도록 조 총장은 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총장이 차기 총장 선출제 문제에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조 총장의 방침을 따른 범인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총장 선출의 권한이 범인에 있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던 것은 다른 아닌 범인 자신이었다. 범인 대신 대학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범인의 말을 곧이 듣는다면, 지난 3달가량 범인은 어떤 권한으로 구성원과 총장 선출제 논의를 했는가. 모순된 자태에 활동함만이 남는다. 구성원 총 투표 도입을 반대하며 여름방학 내내 연일 구성원과 공방전을 펼쳐왔던 범인이다. 그랬던 범인이 조 총장의 의견은 단 4일 만에 수용했다. 구성원과 사전 협의는 전무했다. 지난 3달간의 총장 선출제 논의가 한 순간의 물거품으로 전락한 순간, 범인이 총장과 구성원을 대하는 온도차는 뚜렷하다.

이 외에도 일부 교수는 차기 총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뜬소문마저 돌고 있다. 구성원 대표 간 협의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상황이 이러니 지난 2014년 때처럼 민주적 총장 선출이 어영부영 미뤄질 수 있다는 걱정까지 든다. 봄은 혼자 오지 않는다. 민주적 절차로 포장된 시간 끌기가 아닌, 대표들의 결단과 단합이 필요하다. 9월의 봄이 11월 가을의 결실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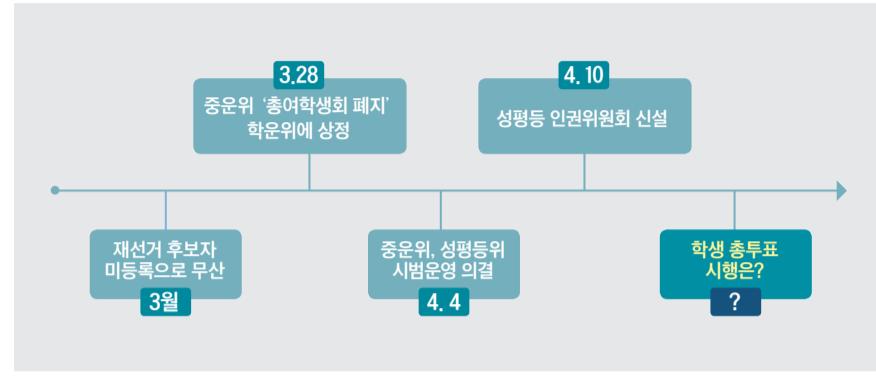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록 | 편집장 최명규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희대로 26(화정동)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화정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6개월 넘도록 미뤄진 총여 존폐 총투표 총학, “10월 셋째주 확운위에서 논의 계획”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국제】 총여 학생회(총여) 존폐를 두고 학생총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총여를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로 대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대의기구가 아닌, 실제 학생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학생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총여는 비대위로 존속되고 있고, 성평등위는 ‘임시’ 운영 중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총투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학생회(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투표를 1학기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 학내 이슈가 발생했다”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 들어서도 총장 선출제 같은

굵직한 이슈와 추석 연휴로 총투표를 시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총학 학생회칙 3장 26조에 따르면 ‘학생총투표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운위원 2분의 1 또는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위원 4분의 1 또는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확운위와 중운위의 의결을 통해 요구가 있을 때로부터 21일 이내, 학생총투표 7일 이전에 사유와 안건을 명시해 투표시행을 공고’해야 한다. 이런 회칙과 총여 존폐의 의미를 고려할 때 사실상 확운위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여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 시행에 확운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총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총학은 총여 존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난 4월부터 중운위→확운위→학생총투표에 이르는 일정 조율을 6개월 가량 이어오고 있다. 현재 총여 폐지 안건이 상정되기 위

한 확운위 소집 대드라인은 오는 2학기 중간고사로 예측된다.

김 회장은 “10월 셋째 주에 총여 존폐 총투표 관련 확운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총투표는 중간고사 기간 중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11월에 총학을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투표를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한다면 투표율이 관건이다. 김 회장은 “회칙의 재개정이나 단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중간고사 기간인 만큼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학은 10월 셋째 주에 열리는 확운위에서 총여 폐지 절차와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총학 임기 중 학생총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성평등위와 총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존할 가능성에 제기된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총여 선거에 입후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총투표 전까지 성평등위가 복지 사업을 대리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총여는 명목상의 기구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총여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부회장은 “총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중도 일반열람실, 복합공간으로 조성

김지원 기자 kjiw990327@khu.ac.kr

【서울】 지난 17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일반열람실과 여학생열람실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중앙도서관은 학생 설문을 토대로 열람실을 휴식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열람실 공사는 학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방학 기간인 7월 22일부터 진행됐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논의가 활기를 띤 것은 우리대학 동문인 SK네트워크 최신원 회장이 자신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부터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약 9억원을 우리 학교에 기부하며 기부금이 중앙도서관 환경개선에 사용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 팀 유현경 직원은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부에 예산 신청을 하던 상황이었다”라며 “최 회장의 기부를 통해 노후 시설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열람실 리모델링과 더불어 오는 겨울방학 중 1층 로비를 재조성하고 그룹스터디룸을 새로이 조성하는 공사가 1차 사업에 해당한다.

중앙도서관은 매년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7년 설문 결과 복합적 공간에 대한 요구가 28%, 소그룹 스터디룸에 관한 요구가 23%에 달하기도 했다. 중앙도서관은 학생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일반열람실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리학교 이영립(한의학 70) 동문이 기증한 유물 다수가 중앙도서관 도마루 공간에 전시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휴게 공간인 도마루 공간을 대신할 복합 공간을 일반열람실 개편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희윤(사회학 2018) 씨는 “방학이 끝나고 와보니 열람실이 바뀌어 있었다”며 “쾌적해진 환경 덕에 열람실에 오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 ‘카페 쿠피’ 효력 없던 다회용 컵, 4개월 만에 다시 일회용 컵으로 복귀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달 27일부터 우리학교 자회사형 카페 브랜드 ‘카페 쿠피’가 모든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중단하고 일회용 컵으로 다시 교체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6월, 카페 쿠피의 다회용 컵 사용 결정을 보도했다.(‘카페 쿠피’ 일회용 컵, 다회용 컵으로 대체/대학주보 온라인, 2018.06.13) 당시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 측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줄여보고자 다회용 컵

으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카페 쿠피의 최초 계획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정부 방침이 마련되기 전에 매장 내에서 머그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했고 이에 카페 쿠피는 매장 내에 수거되는 다회용 컵을 머그컵처럼 재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부임한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 강수호 팀장은 “처음 다회용 컵으로 바꿀 당시에는 재사용을 고려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다회용 컵은 일회용

컵과 외관상 다를 게 없어 이를 재사용했을 때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회용 컵으로의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다회용 컵이 좀 튼튼한 일회용 컵 구슬 밖에 하지 못했다”며 “다회용 컵 단가가 높은 것에 반해 환경보호에 크게 도움 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멀티미디어관 청소노동자 A씨는 “다회용 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며 “버려지는 컵의 양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카페 쿠피를 이용하는 배은서(시각디자인학 2017) 씨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들긴 했지만 재사용할 일

이 없었다”며 “재사용 컵을 쓰면 100원이 할인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다회용 컵 재사용 시 100원 할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며 “다회용 컵이란 것을 알아도 재사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다회용 컵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

다회용 컵 재사용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카페 쿠피가 다회용 컵을 포기했다고 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놓은 것은 아니다. 강 팀장은 “다회용 컵보다 좀 더 재활용 가능성이 높고 환경오염방지에 효율이

높은 빨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종이 빨대로 교체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재활용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컵에 글씨를 새겨 넣지 않고 무지로 제작하고, 소모품인 컵 훌더도 새로운 방안을 구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고려중인 계획을 전했다.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 측은 “다회용 컵을 일회용 컵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다시 단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종이 빨대로 교체하면 단가가 비슷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환경복지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 아직까지는 마찬가지로 가격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2018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포기기간 : 10.2.(화) ~ 10.10.(수)

#### 2. 다전공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희망하고 재학 중인 자

2) 2006학년도 전 입학자는 신청만으로 이수신청을 승인함

3) 국제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등록하게 신청함

4)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지원과와 안내문 참조

5)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는 분야의 전공 외에 2학기 전공의 다전공 가능)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호텔관광대학 학생의 동일학부 내 다전공 신청에 관한 사항은 호텔관광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나. 다전공 신청기한 : 2017학년도 입학정원(30%) 이내 인원(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경희대학은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2) 연간 선발기준으로 2학기 신청한 학생은 2학기 신청한 학생으로 선발함

3)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한 명을

다. 다전공 신청 기준 : 성적, 학업계획서, 연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 경희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희대학 :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 : 세무학전공 :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라. 다전공 선발 학과(첨부 신청기준 및 다전공 이수불가 전공 참조)

1) 다전공 이수는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할 때, 제3전공, 특성화고등재학부, 언론정보학과(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경영학부, 관광학부, 암호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이수자가 금지된 전공은 제외함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생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다전공 신청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2전공’ 란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제3전공’까지 선택 가능) → ‘저장’ 클릭

※ 학부별로 신청하는 학생은 제3전공에 신청하는 학과(부) 편제에 하여 신청이 가능함

2) 신청한 전공(제3전공)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편제에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생이 변경될 수 있음

### 2018학년도 2학기 본전공(제1전공) 선택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본전공(제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0.2.(화) ~ 10.10.(수)

#### 2. 신청대상

가. 대상 : 이수 중인 다전공의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 나. 포기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이수 중인 다전공 신청명을 선택 → ‘빈칸을 선택’ → ‘저장’ 클릭

2) 전공신청정보에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 다. 유의사항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다전공 포기를 한 경우, 다시 다전공을 이수하려면 새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포기 신청기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로부터 2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 대학사회

## 조교, '노동권 사각 지대' ... 장학금, 최저임금 못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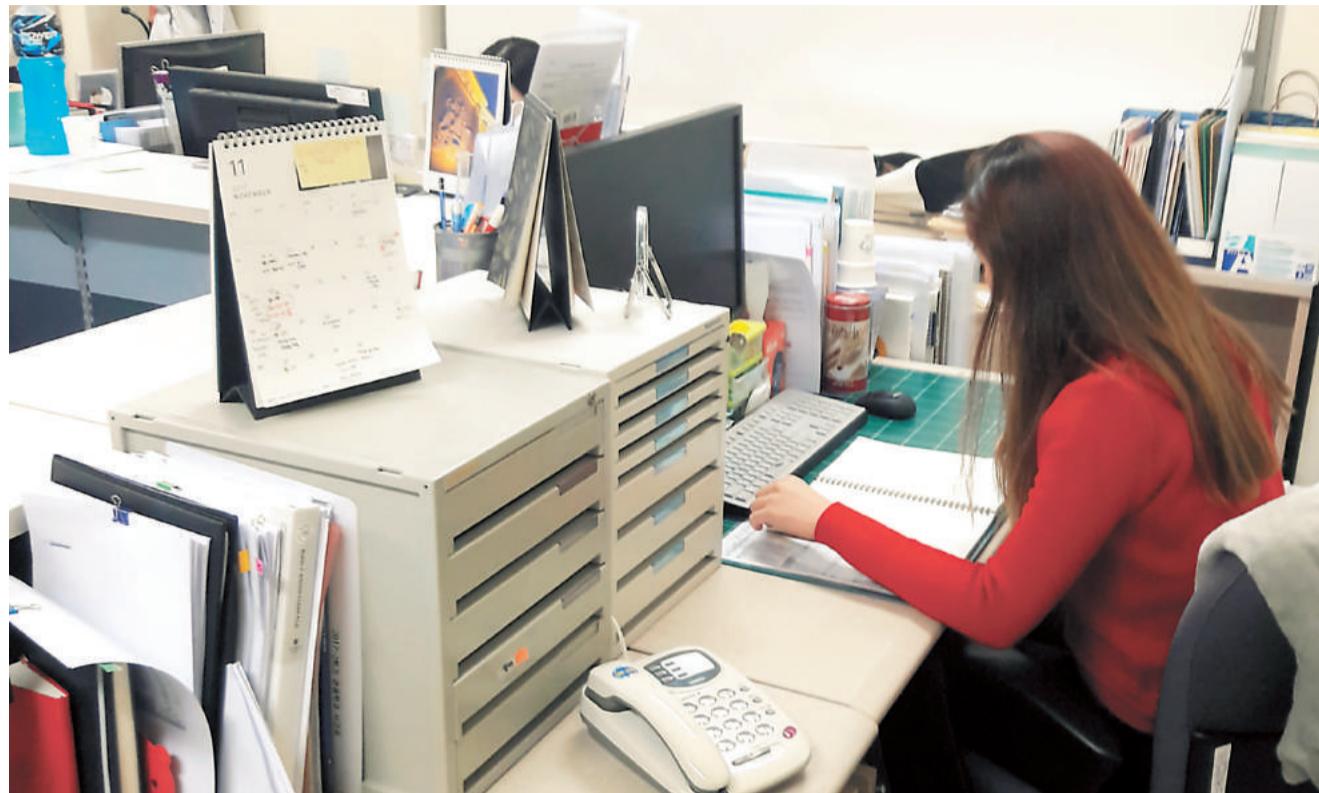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박소영 기자 notold@knu.ac.kr

우리학교에서 행정조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행정조교를 하는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으니 말 그대로 열정폐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조교란 대학에서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연구나 학사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과 사무실에서, 단과대 행정실에서, 본부 행정부서 등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이들은 대학 업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은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간단한 업무 보조를 하고 학업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리학교에서도 조교장학제도를 운영하면서 노동시간에 따라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연구부터 학사행정에 이르기까지 단순 보조를 넘어서 대학 업무 전반에 걸쳐 조교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구슬아 위원장은 조교를 두고 “대학의 유자·재생산은 물론 기술개발, 연구 성과물 발전 등 특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는 처우, 특히 노동 강도에 비해 받는 처우는 열악하다. A 씨는 “근무 시간을 꽉 채우며 일하고 조교장학 최대액을 받아도 최저 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생계비에 보탬은 커녕 등록금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지금 받는 장학금 또한 일하는 시간을 따져 보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라고도 덧붙였다. 조교 급여는 임금이 아닌 장학금 감면 형식인데다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해도 야근 수당이나 주휴 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우리학교 인문계열 단과대 조교로 일하다 졸업한 B 씨는 “24시간 핸드폰을 불들고 있어야 했다”며 “교수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선배에게 연락이 갔고 새벽에 불려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B 씨는 “교수의 개인 비서였다. 교수님의 식사 배달, 개인적인 은행 업무도 대신 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또한 근무 시간은 규칙적인 편이지만 “우편물이나 소포를 부쳐달라고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공계열 연구실 조교인 C 씨는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나와 일한다”며 “아



“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은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간단한 업무보조를 하고  
학업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일반의 인식

”

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장학금으로는 등록금 절반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구 위원장은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도제적 관계, 즉 위계의 관습이 여전히 지배적이라 온갖 영역에 있어 교수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어도 대학원생 개인이 즉각적으로 이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대학원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조교를 택하는 대학원생이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시행한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대학원생 중 65.7%가 ‘장학금 및 연구 수행 등 수입이 없으면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사례처럼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행정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0.1%,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응답 역시 19.5%로 나타났다.

구슬아 위원장은 기형적 형태의 원인을 대학 입장에서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 장학생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최저 급여, 4대 보험, 복리후생 등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대학 평가

에서 장학금 관련 지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대학 입장으로서는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7개 대학원 중 절반이 넘는 24개(51%) 대학원들이 연구·행정·수업 조교 11,616명의 급여 67억 원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6개 대학 대학원생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은 대학원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호하여 대학원생 연구 환경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국대 사례는 대표적이다. 지난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총장을 고발했다. 이후 동국대는 조교 제도를 개편해 행정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노웅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미

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조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대학별로 운영 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행정 해석을 내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김현웅 근로감독관은 “최근 들어서는 개별 사안 차원이지만 대학원생 조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현재로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의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해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조교의 근로 시간,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임금 등의 사항을 대학 공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을,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조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는 이달 내로 조교 채용 시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업무 시간을 주 20시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업무협약서’를 마련해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 방침에 대해 구 위원장은 “대학원생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표준 약속이 마련됐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고의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각 대학이 얼마나 이를 충실히 따르게끔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문학협동조합 김민석 작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법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조교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교무처 손수민 직원은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모두 내부 논의 중이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조교가 규정 시간 이상의 일을 하거나 정해진 업무와 무관한 일에 동원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무처 차원에서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경희대학교 학생을 위한 대학원 학과 설명회  
제1회 일반대학원 입학 FAIR 개최

일반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회 대학원 입학 FAIR를 개최합니다.  
금번 FAIR는 경희대학교 학부생들에게 일반대학원 입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됩니다.  
대학원 각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상담해 드리므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학부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대상** : 대학원 진학에 관심있는 학부생 누구나

**일시 및 장소**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2018.10.04.(목) 13:30~16:30 스페이스21(신축건물) 앞 원형 광장	2018.10.10.(수) 13:00~17:00 중앙도서관 1층 로비

**참가자 특전**

- 대학원 학과별 교수님 또는 선배들로부터 대학원 진학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학과소개, 교육과정, 연구수행, 장학, 졸업 후 진로 등 유익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본교 학부생이 대학원 입학 시 제공되는 각종 장학제도를 상담해 드립니다.
- 참여하신 분에게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문의**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nu.ac.kr>
- 서울캠퍼스: 02-961-0121~4 [khsb2000@knu.ac.kr](mailto:khsb2000@knu.ac.kr)
- 국제캠퍼스: 031-201-3501~4 [khwb6000@knu.ac.kr](mailto:khwb6000@knu.ac.kr)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지방보훈청

따뜻한 보훈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프로젝트 안내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프로젝트

서울 이시영, 민영환  
김상옥, 이봉창

주관 광복회

내용 크라우드 펀딩 모금을 통한 서울지역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기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

방법 온라인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기부  
링크 : <https://www.ohmycompany.com/reward/5565>

# 일방향 수업 넘어 학생 주도 수업으로 재구성해야

## 미래교양리포트: ③ 교수법의 혁신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hu.ac.kr

#. 지난 교양교육 현재를 통해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육성을 추구해야 함은 확인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사례자가 문제 해결력이 융복합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취됨에 동의했다. 교양 교육 내용이 두 가지로 압축됨에 따라 우리신문은 이번호에서 교육 방법을 살펴보자 한다. 교수법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특별취재팀=최명규, 안나연, 이후승, 김지원, 안수민 기자)

우리신문이 지난 8월 양 캠퍸스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현재의 교양교육에 불만족했다. 그 이유로 수업 방식과 교수법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설문의 응답자 73.6%가 우리학교 교양 교육의 목표에는 공감했다. 이는 교육법의 개선이 교양교육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U리닝연합회 정현재 사무총장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교육방법은 교육목표 달성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다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변화하는 인지구조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방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신문이 지난 2회에 걸쳐 연재한 미래교양리포트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양 교육의 목표는 문제해결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양교육 학회 흥성기 학회장은 현재의 일방향 수업을 비판하며 '학생 스스로 이것과 저것을 엮어보는 경험'을 강조했다. 흥 학회장은 "교양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기 위해선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며 '끌교양' 같은 말이 팽배한 현재의 대학에선 수동적인 자세보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교양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이스트 교수학습혁신지원센터에 이태영 센터장 역시 "잘 정의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에선 문제해결력을 위한 창의력이 개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문제해결력을 갖추기 위해선 교

## 교수법에 혁신을 적용한 타학교 사례

### 카이스트

#### 에듀케이션 3.0

사전동영상  
학습 이후  
오프라인 활동  
(토론협동형  
과제, 실험)

#### 에듀케이션 4.0

· 플립러닝  
· 강의 이후 토론식  
팀워크 수업 진행  
· 전면 토론식  
팀워크 수업

### 한국외국어대

#### 스마트 러닝

스마트 기기  
활용한  
언어 교육

#### AI 러닝

개인 맞춤형  
어학 교육  
(adaptive learning)

“

같은 교육내용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방식은 지속적 발전과  
재구성 필요해

”

### 연재 순서

미래교양리포트① 후마 어제와 오늘  
미래교양리포트② 교육 내용의 지향점  
미래교양리포트③ 교수법의 혁신  
미래교양리포트④ 평가는 교육의 시작  
미래교양리포트⑤ 교양 나침반을 켜라

수학습 패러다임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며 "이미 있는 문제를 풀기보단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 예"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이스트는 기존의 교수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듀케이션 3.0'을 제시했다.

이는 플립러닝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2012년에 플립러닝을 구체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플립러닝은 학생이 사전에 제공된 온라인 강의를 선행 학습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에듀케이션 3.0은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토론·협동형 과제, 실험을 비롯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성됐다.

카이스트는 지난 3월부터 명칭을 '에듀케이션 4.0'으로 변경했다. 카이스트는 2012년 에듀케이션 3.0 출범 당시부터 플립러닝을 적용한 강좌수를 꾸준히 늘려 에듀케이션 4.0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에는 이를 182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이 센터장은 "플립러닝이란 카테고리에 얹매이지 않고 노력한다"며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없애는 것이 각오"라고 밝혔다.

신 팀장은 "기존의 일괄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개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러닝'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러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수업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러닝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외대 콘텐츠

하며 준비부터 진행까지 수업의 주체가 되는 플립러닝과 더불어 대표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케 하는 교수법이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자와 교수자,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해 획일적인 강의방식을 깨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조성된 창의적 학습 환경은 문제해결력 발전의 배경이 된다.

한국외국어대(외대)는 스마트러닝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적극적인 스마트러닝 개발을 위해 외대는 지난 4월 기존의 지식출판원을 지식출판콘텐츠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신선후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교수법 또한 변화돼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는 색다른 교육과정을 겪은 학생을 사회에 배출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콘텐츠원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신 팀장은 "기존의 일괄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개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러닝'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러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수업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러닝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외대 콘텐츠

원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수법과 콘텐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듯 교수법의 개발은 교수자의 기술 적용과 병행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교수학습 개선에 있어서 교수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며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선 교수역량 개발을 비롯해 교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교수역량개발을 위해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샵을 학기당 최소 4회에서 5회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교수 간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 교수학습혁신지원센터 이태영 센터장은 "워크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결과 이제 대부분의 교수가 에듀케이션 3.0 프로그램을 잘 이해해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며 "2031년까지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강좌를 50% 이상으로 전환하자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기장비 구입 등 초기비용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외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시행한다. 외대 콘텐츠원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학생들에게 매학기마다 아이패드를 대여한다.

또 교내에서 ADE(Apple Distinguished Educator)로 지정된 교원은 별도로 애플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스마트러닝에 관심을 갖게된 교직원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나누기도 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교육법은 문제해결력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돋는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가 기술을 활용할 때 더 많은 학습자가 문제해결력을 성취할 수 있다.

한국U리닝연합회 정현재 사무총장은 "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발적 학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제까지의 오프라인 강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어 "같은 교육 내용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육방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사회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문제해결력을 다변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대두되는 가치다.

## 2018-2학기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안내

### 1. 목적

•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진로탐색 등 심도있는 저아성찰 계기마련

•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물 도출을 통한 학생 융합설계능력 함양

### 2. 지원대상

• 2018-2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청규학기 재학생

• 꿈과 도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

• 2019년 2학기 출입예정자, 청규학기 조교자, 장학규정 위배자, 2018-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성적·이수학점, 가계고정장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 3. 신청방법

•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는 팀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선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토장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ex) 독립연구, 전환21장학 등

### 4. 도전분야

• ①창업 / ②봉사 / ③탐방 / ④연구 / ⑤지구주제

• ⑥부설대학원원장에게 토장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ex) 독립연구, 전환21장학 등

### 5. 선별인원

• 50명/팀 내외

• 선별인원과 관계없이 장학의 취지와 목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별하지 않을 수 있음

### 6. 선별방법

• (1단계) 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별인원의 1.5~2배수 선별

• (2단계) 면접평가(100점)+면접평가(100점)로 최종대상자 선별

•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별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 평가방법 및 반영비율

### 구분

#### 평가항목

• 꿈과 도전주제의 연계성(25점)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기능성(35점)

• 실행결과의 증명성(15점)

• 장학금 사용계획의 적합성(15점)

• 학생지도계획의 충실했(10점)

• 학생지역사회 및 학생기여도(30점)

### 7. 장학금 지급액

• 1인/팀당 400만 원

• 장학금 신청시 300만 원 신자금, 증진·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이후 신자금을 통해 100만 원 지급

• 장학금으로 선별된 후 의무사항 이행없이 도전을 포기할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300만 원)은 반납해야 함

• 장학금으로 선별된 후 의무사항을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학금(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야 함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리더에게 전액 지원됨

### 8.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8. 9. 17. (월) 09:00 ~ 10. 12. (금) 17:30 [4주간]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1) 온라인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8-2학기 경희꿈도전장학

2)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8. 10. 10. (수) 09:00 ~ 10. 12. (금) 17:30

• 제출처 : 학생지원센터(장학)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원 7번 창구

• 제출서류

•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처물) 1부

• 경희꿈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부

※ 활동계획서는 등 기간 내 janghak1@khu.ac.kr로 파일형태로도 제출해야 함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 9. 선별일정

#### 내용

1) 장학금 신청

2018. 9. 17. (월) 09:00 ~ 10. 12. (금) 17:30

2) 장학설명회

2018. 9. 18. (화) 18:00, 청운관 301호

3) 서류제출기간

2018. 10. 10. (수) 09:00 ~ 10. 12. (금) 17:30

4) 면접평가일정

2018. 10. 30. (화)

5) 선별결과 발표

2018. 11. 5. (월) 10:00

6) 1차

## Peace BAR Festival

## PBF 2018, 새 시대 맞은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

## 세계평화의 날 기념 행사

서울캠퍼스 뉴스팀 khunews@knu.ac.kr

#. 매년 가을 우리학교엔 캠퍼스가 평화로 물드는 특별한 기간이 찾아온다.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Peace BAR Festival(PBF) 2018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평화의 날은 전쟁 및 폭력행위의 중단을 말하며 경희대 설립자인 故 조영식 박사가 지난 1981년 UN에 제안해 제정됐다. 37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평화에 평화가 더해졌다. 오랜 시간 일어있었던 남북 관계에 '한반도의 봄'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새롭게 전개된 남북 관계는 정치변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그 때문에 올해를 관통하는 주제 역시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 그 가치와 철학'으로, 우리가 당면한 시국을 반영했다. 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지구적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도 논의됐다. 학생, 교수와 세계 석학이 한반도의 새로운 지평과 인류의 평화적인 미래까지 탐구한 PBF 2018, 그 중심엔 경희가 있었다. 평화와 경희,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서울캠퍼스 뉴스팀 =강래완, 권진현, 배지현, 오진영, 이다빈, 이서연, 이은화, 조민기, 최수연, 흥연지, 안나연 기자)

## 1. 경희 Peace Road 탐방

우리학교 건축물에 숨겨진 평화적 이념을 따라 걷는 탐방. 올해는 흥승태(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우리가 사는 세계'를 수강하는 중국인 유학생 30명도 참여해 경희대의 평화 이념을 살폈다. 탐방은 교시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담은 교시탑, 본관, 평화의 전당, 중앙도서관을 순서대로 소개하며 이뤄졌다. 탐방을 진행한 경희기록관 남기원 연구원은 "특히나 올해는 유학생과 함께 해 역사 속 평화의미를 찾는 행사가 더욱 뜻깊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 2. 특별강연

〈가제타 비보르차〉 아담 미치니크 편집장이 세계시민사회에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갖는 의미를 특별강연을 통해 전달했다. 미치니크 편집장은 급격한 경제 성장, 민주주의 사회로의 개혁 추구 등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장을 보였다. 이어 "한반도의 봄"으로 대변되는 국제정세 속 고도의 시민사회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화합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 3. 원탁회의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세계 석학과 함께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전환 문명의 시대'라는 주제에 맞춰 위기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뒀다. 한국, 동아시아의 정치 상황과 더불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 및 세계적 평화 문제도 논의됐다.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교육의 중요성에 입을 모으며, '정보의 흥수'라 일컫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에는 특히나 이용자들의 비판적 사고가 요구됨을 역설했다.

## 4. 토론회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한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참가한 토론회.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16강과 준결승은 '통일은 청년세대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4강과 결승은 '통일의 방식: 동질성 회복 혹은 이질성 수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질성 수용 관점에서 통일의 방식을 토론하며 우승한 '통하조' 측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점이 제기될 수 있어 좋았다"는 심경을 전했다.



## Since 1982, Peace BAR Festival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제 37회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18 Peace BAR(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Festival(PBF)' 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열렸다. PBF의 일환으로서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한주 동안을 '세계 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올해 PBF의 주제는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였다.

우리학교가 매년 PBF를 개최하고 있는 이유는 UN 세계평화의 날의 제정에 그 배경이 있다. UN 세계 평화의 날이 제정되던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였다. 이로 인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었다. 이에 1981년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는 UN에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의 제안은 IAUP의 회장이었던 故 조영식 박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후 제36차 UN 총회에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위한 안건이 상정됐다. UN 총회가 156개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이 제안을 채택함으로써 UN 세계평화의 날이 탄생했다. 그 후 1986년을 세계 평화의 해로, 9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정했으나 현재는 9월 21일로 고정됐다.

우리학교는 세계 평화의 날이 제정된 이듬해인 1982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PBF를 개최했다. 그간 PBF는 국내외 지식인을 초청하여 세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 후마니타스칼리지는 PBF를 맞아 '세계 평화주간'을 선포하고 구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되새기고 고민해볼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9월 18일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세계평화의 날 기념

식이, 20일에는 서울평화포럼이 치러졌다. PBF 기념사를 통해 조인원 총장은 "지금은 희망과 함께 역사를 바꾸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를 설명했다.

지난 18일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와 19일에 열린 기념식 특별강연, 원탁 회의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평화주간 선포식, 평화극장, 경희 Peace Road 탐방, 세계평화의 날 기념특강, 평화토론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 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김지은(철학과 2015) 씨는 "우리학교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BF와 같은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면서 "오직 자국의 이권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지구적, 인류애적 시각을 가진 경희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영준 학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관계가, 전세계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이상기후가 짜를 이뤄 이번 행사의 주요 화두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평화라는 가치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기념하고 고민하는 세계 평화의 날과 PBF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참여는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올해는 학생들의 제안과 기획으로 평화토론회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렸다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오늘날과 같이 물질만능 주의와 냉소적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 풍토에서 세계평화와 같은 이상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PBF가 학생들로 하여금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사고의 넓이와 깊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 4차 산업혁명은 청춘의 상상력이다

교수칼럼



최상진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열자〉의 우화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주나라 목왕은 중국의 서쪽 변방을 순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변방의 나라에서 언사라고 하는 공인을 만났다. 목왕은 그를 가까이 불러 물었다 “그래, 너에겐 어떤 재주가 있느냐.” 언사가 대답했다. “무엇이든 분부하시는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사오니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이튿날 언사가 왕을 찾아왔다. 왕은 다시 그를 가까이 불러 물었다. “지금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나?” “제가 만든 어릿광대입니다. 이 어릿광대는 춤과 노래를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목왕은 놀라서 자세히 훑어보았다. 행동하는 모습이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어릿광대는 공인이 시키는 일으면 무엇이든 해 냈다. 왕은 어릿광대가 진짜 사람인 줄만 여기고 후궁들과 함께 구경을 했다. 그런데 광대 짓이 끝날 무렵이 되자 어릿광대는 눈을 끔벅이며 왕의 좌우에 있는 후궁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왕은 크게 노하여 그 어릿광대를 만든 언사를 죽이려 했다. 언사는 겁을 먹고 곧 어릿광대의 몸을 분해하여 왕에게 보였다. 어릿광대의 몸은 가죽, 나무, 아교로 만들어져 있었고 안으로는 간, 담, 심, 폐, 비, 신, 장 등이 있었으며, 밖으로는 근, 골, 지, 절과 피, 모, 치, 발 등이 있었다. 목왕은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의 기술이 조물주의 일과 같아 할 수 있는 것일까.”

열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때 살았던 중국의 사상가이다. 실존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록은 남아 현대에 이르고 있다. 이 우화에 나오는 어릿광대는 분명 로봇이다. 열자는 이미 2500년 전에 로봇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중앙일보 DB)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한다

17세기 미적분의 기초를 세운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의 창안자이다.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은 1과 0이다.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은 고대 중국의 철학 체계인 주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세상의 삼라만상이 음과 양의 이분체계로 이루어졌다는 동양의 인문학적 상징체계가 서양으로 건너가 수리과학의 꽃이 되었던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진법은 컴퓨터의 기본원리다. 결국 끝나기까지 올라가면 수 천 년 전 태극의 기본 원리가 컴퓨터를 낳게 된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직장, 학교, 가

스 보여가 세운 물리학 이론이다. 원자구조와 핵분열 이론을 펼친 널스 보이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할 때 태극무늬가 그려진 도포를 입고 나왔다. 태극은 곧 그의 양자학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동양의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철학이론이 서양 과학이론의 기초가 되고 현대 정보산업사회를 지배하는 바탕이 된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직장, 학교, 가

정 등에서 거의 모든 일은 컴퓨터가 다하는 세상이 되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컴퓨터가 내장된 핸드폰을 달고 산다. 가히 반려기계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곰곰이 따져 볼 때가 됐다. 인간은 지금 점점 더 똑똑해지는 기계에게 밀리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블루칼라의 일자리는 이미 빼앗긴지 오래고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넘보고 있다. 자칫 인간의 팀워크와 간병진 기계가 결합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비극적 종말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부르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기계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인공지능, 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기계적 수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머리 좋은 기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동양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서구의 과학 이론의 뿌리가 되었듯이 거꾸로 기계 문명을 이기는 것도 동양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우리는 동양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는 동양적 사고가 스며져 있다. 서양의 논리적 가치관이 따라올 수 없는 동양의 신비로움이 우리 가슴 속에 숨쉬고 있다.

청춘은 짧음을 지녔고 맑고 따뜻한 영혼을 가졌다. 청춘들에게 권하노니 이제 그대들의 세상이다. 그대들의 세상을 그대들의 상상력으로 채워보자. 차갑고 오만한 컴퓨터에 눌러 살지 말자. 컴퓨터를 이기자.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찾자. 인간 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 보자. 상상, 공상, 몽상, 망상까지 그 어느 것도 좋다. 그대들의 머리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자. 꿈을 꾸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자. 그리고 일어나 메모를 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자.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하면서 피곤해 하지 말자. 자유로운 나의 집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자. 청춘들이여, 상상력은 그대의 뼈이고 난 그대들의 힘을 믿고 있다.

## 참여마당

송태현 서울캠 총학생회장  
김효형 국제캠 총학생회장



## ‘Master Peace : 희대의 걸작’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남과 북으로 갈려있던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지금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는 이번 가을 대동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개교 70주년을 준비하며 교내 역사상 최초로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공동 주관 가을 축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양 캠퍼스는 그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동안 양 캠퍼스는 고리돼 있었다. 서로의 존재는 알고, 일부 교류는 있었지만, 각자의 총학생회와 각자의 학교 부서, 그리고 분리된 단과대가 무언가를 함께 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익숙함일 것이다. ‘경희’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는 모두 하나였음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 시작이 필요하다.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장대하리라’라는 말처럼.

학생들은 끊임없이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교류를 열망했다. 매번 축제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함께하는 축제에 대한 기대를 표했지만 정작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은 힘들지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시작이 있어야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도박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총학생회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총학생회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서울·국제캠 총학 축제 공동 진행 양 캠퍼스 학생들의 교류 열망 실현

#### 이원화 캠퍼스의 장점 극대화

캠퍼스의 이원화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학문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각기의 특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교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원화 캠퍼스의 장점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학생들 간 ‘교류’의 기회가 너무 적었다. 이번 2018 경희대학교 가을대축제, ‘Master Peace’를 통해 교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축제에선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서 비슷한 듯 다른,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동문 선배들이 다가가는 ‘동문 멘토링’과 ‘커리어 페스티벌’, 양 캠퍼스의 전경을 느낄 수 있는 버스킹 존과 루프탑. 재학생들의 숨겨진 키를 방출하는 총학생회 가요제 ‘다 모였 KHU 요!’와 ‘희대의 명가수’ 등이 준비돼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다. 미약할지언정 시작은 장대한 꿈을 향한 큰 전진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이 될 축제의 성공을 바라며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희대의 걸작에 구성원들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 언어 습득의 비밀 - ③

### 외부 상호작용 언어 습득의 핵심



외국어대학  
김영주(한국어학) 학장

지난 추석 연휴, 가을 들판은 추수를 앞두고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올여름 흑서도 지난달 폭우도 허투루 맞지 않고 견뎌 추수에 이른 모습이 훌륭했다. 영근 나라를 보며 환경에 대한 착실한 경험은 내실 있는 결실로 귀착된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본다. 비단 나라만이 아니다. 인간의 뇌도 외부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내부의 알찬 연결을 만들어낸다.

#### 언어 발달 돋는 보호자·유아간 상호작용

언어 습득의 일등공신을 꼽으라면 단연 상호작용을 꼽을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주위의 사물과 그리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언어를 발달시킨다.

유아는 태어난 아래 자신이 처한 세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감각 정보를 경험하여 처리하게 한다. 감

각 정보 처리를 통해 유아의 뇌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인 시냅스를 간에 상호 연결이 일어난다.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전에 언어를 듣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겪는 ‘언어와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연적이다.

유아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은 부모로 하여금 유아의 이해 수준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게 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상호작용 할 때 부모는 유아의 수준에 맞는 말과 주제를 골라가며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다.

#### 유아 눈높이 맞춘

#### ‘mommy talk’ 방법도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며 쉬운 어휘를 선택하고,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을 한다. 유아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반복하거나 부연한다. 유아는 이에 대해 반응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안다. 유아

의 정서적, 언어적, 사회적 수준에 맞춘 대화를 mommy talk 혹은 caregiver talk이라 칭한다. 또는 아동 대상 발화라고도 한다.

#### 해외 사례로 접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

거의 예외 없이 성공을 보이는 모어 습득에서도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Sachs, Bard, & Johnson(1981)은 청각장애인 가정의 두 아동의 모어 습득을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인 두 아동, Jim과 Glen은 형제이며 그들의 부모는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나 Jim과 Glen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맨이인 Jim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구어로도 혹은 수화로도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했다. Jim은 언어 자체를 보이다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어에 노출되고 그 이후 차차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생인 Glen

은 일찍부터 형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언어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상호작용의 중요함은 루마니아 고아원 원아들의 사례, 이를바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노동 인력 충당을 위해 부부 당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두도록 강제했다. 가난한 가정은 자녀의 양육을 감당할 수 없어 아 이를 고아원에 맡겼다. 보모들은 공산 정부 방침에 따라 아동에게 감정적 돌봄이나 상호작용은 하지 않았고 기본 욕구만을 충족시켜 줬다.

공산 정권의 붕괴와 함께 고아원에서 양육되던 아이들은 전 세계로 입양되었다. 아이를 입양한 한 미국인 부부가 아이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았더니 아이의 말은 그저 획일화된 대화였다.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이후로도 아이들은 성장

하면서 학습장애와 함께 어린 시절 상호작용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 외부 상호작용은 우리 뇌를 활성화 시킨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은 뇌 안의 많은 부분을 연결한다. 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부분과 부분을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 새로 누군가를 만난다.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모든 것은 상호작용이고 또 경험이다. 이것은 우리의 뇌를 작동하게 하고 그 작은 서로 연결된 많은 부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오늘도 우리는 언어로 혹은 감각으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우리의 뇌는 내부에서 여러 부분 간에 부지런히 상호작용을 할 것이며 또 필요하다면 길을 만들 것이다.

## 경희人(in) 실리콘밸리

## 유전 데이터 지킴이, 시작은 막연한 꿈에서부터

③전상수 동문(컴퓨터공학 2007)

#.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혀 다른 세 전공의 학생이 글로벌융합설계장학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공을 모색하고 돌아왔다. 김도훈(응용화학 2013), 유재욱(한국어학 2012), 류성한(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4) 씨는 세계 유수의 IT공룡 기업이 모인 실리콘밸리,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 동문을 만나 글로벌 IT기업 진출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보내온 이야기를 대학주보를 통해 소개한다. 세 번째 순서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디엔에이넥서스(DNAexus)'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상수(컴퓨터공학 2007) 동문이다.

“저는 ‘DNAexus’에서 Product Management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품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전상수(컴퓨터공학 2007) 동문의 담백한 자기소개다.

실리콘밸리에는 페이스북, 구글 등 우리에게 친숙한 글로벌 대기업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이곳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입지를 구축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전상수(컴퓨터공학 2007) 동문이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가 그렇다.

이 회사는 유전 정보의 공유와 관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다. 병원이나 연구소, 제약회사가 DNAexus의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이다. 회사는 이들 고객들이 많은 양의 유전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전 동문은 우리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이를 더 깊게 공부했다. “대학원에서 메디컬 분야의 정보를 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미국에 가기 전 한국IBM에서 일했습니다” 라며 현재 회사에 들어가기 전의 경력을 설명했다.

전 동문의 정확한 직위는 ‘인턴’이다. 취업을 위해 으레 해야 하는 것, 제대로 된 처우도 없이 쓰이는, 그러면서도 그조차 잡기 어려운 한국의 인턴과 미국의 인턴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전 동문의 설명이다. 전 동문은 “한국의 인턴보다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실무적이며 큰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다”며 “많은 책임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보수도 정직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매니저가



전 동문은 뒤를 따라온 후배를 위해 머신러닝과 보안은 확실히 상승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라

휴가로 자리를 비워 그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웃어보였다.

업무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선 나이 많은 인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 인근 대학 학생들도 한국과 비슷하게 방학이 되면 인턴 자리를 찾지만 특이한 것이 이곳에서는 박사 과정이나 학위자도 인턴을 찾는다.” 실제로 서른 살 넘은 박사들이 인턴 자리를 찾아온다고 한다. 전 동문은 한국처럼 형식적인 인턴을 하지 않는 만큼, 인턴 경험이 일종의 ‘필수 스펙’이라고 이야기했다.

전 동문은 미국으로 보낸 원동력은 끊임 없는 연구와 공부였다. 그는 지금도 인턴을 하며 현지 대학에서 전문석사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Product Manager(PM)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 동문은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PM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뜨고 있는 직업이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선 으레 연차가 쌓여야 관리직을 맡는 문화 탓에 이보다 자유로운 미국 진출을 택한 것이다.

전 동문은 실리콘밸리 기업 DNAexus 이전에 한국IBM에서도 일했다. 미국의 비례적 작은 기업과 대기업 한국지사에서의

생활은 달랐다. 전 동문은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자유로움’을 꼽았다. 전 동문은 “지금 회사에선 5시 인터뷰 때문에 팀장이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인턴인 내가 먼저 ‘퇴근할게요’ 하고 퇴근할 수 있다”며 “물론 팀장도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낮 4시 반에 퇴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옆 사람

이 휴가를 갖는지 어딜 갖는지도 관심이 없다. 좋게 말하면 자유로움이고 나쁘게 말하면 개인주의라고 전 동문은 설명했다. “물론 한국IBM도 야근 없고 근무하기 좋은 회사였지만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있었다. 한국IBM이 거의 50년이 된지라 긴 시간만큼 한국화가 이뤄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한국IBM은 글로벌 IT공룡 IBM의 한국 내 자회사로 글로벌 기업이긴 하나 한국지사는 이미 1967년 설립됐다.

글로벌 대기업인 IBM은 면접 방식도 달랐다고 한다. “한국IBM에서는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와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면접 내용을 소개한 전 동문은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 원어민과 일대일 영어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련 전공자라면 누구나 선망해 마지않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전 동문은 실리콘밸리 취업 조언도 잊지 않았다. “미국은 주체인과 비자 문제가 꽤 큰 차이로 작용

한다”며 “솔직히 말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이면 백, 모두가 유학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 동문은 그런 이들에게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분야의 Github(깃허브) 프로젝트에서 contributor(컨트리뷰터)가 되도록 도전하고 조언했다. 깃허브는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 관리 및 공유 서비스로, 기업과 개인을 불문하고 많은 프로그램의 코드가 공유되고 있다. 컨트리뷰터는 여기 등록된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이들을 칭한다. 전 동문의 조언처럼 실제로 최근 전 세계 IT업계는 지원자의 깃허브 계정을 일종의 포트폴리오로 요구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전 동문은 “온라인 지원은 블랙홀에 자기 이력을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하지 말고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에 면접 관련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동문은 뒤를 따라온 후배를 위해 머신러닝과 보안은 확실히 상승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헤어들의 능력 또한 비례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보안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안 회사들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안 레벨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우스갯소리로 여기 실리콘밸리에선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려도 머신러닝을 활용했다고 할 만큼 흔해서 문제긴 하지만요.”

전공을 불문하고 이러한 직군에 진출하기 위해선 당장은 코딩 능력에 집중하는 전 동문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자바, 자바스크립트가 무난하지만 최근엔 파이썬으로 통일되는 분위기다”라며 “언어보단 프로그램 디자인 패턴, 자료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라고 추천했다. 프로젝트는 팀플레이이고, 미국에선 분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발전하는 방향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전 동문은 자신도 개발 능력이 크게 뛰어나지 않지만 실리콘밸리에 대한 막연한 꿈을 매니저라는 형태로 이룬 만큼, 프로젝트가 발전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어= 김도훈, 유재욱, 류성한 학생)  
정리= 이우승 기자

## 제6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11. 1)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후마니타스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행사내용	장소
11월 1일 (목)	13:30~15:00	백일장 -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 (자유 에세이, 서평)	오피스홀 대회의실 (51호)
	15:00~16:00	명사 초청 특강 - 박 준 시인 '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16:00~17:00	백일장 시상식	

## ■ 백일장

- 부 문 자유 에세이 / 서평(복수 참가 가능, 글감 당일 제시)
- 서평 도서 1. 박 준, “문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난다, 2017.  
2. 류태호, “성적 없는 성적표”,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서평 참가 신청자에게 도서 무료 제공, 선착순
- 시상 내역 ○ 대상(1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금상(2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우수상(4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장려상(5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참가 신청 9월 12일(수) ~ 10월 29일(월)  
참가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전화 신청도 가능  
※ 참가신청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홈페이지 <http://hc.khu.ac.kr> (일립) → HC행사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접수·문의 후마니타스 글쓰기센터  
청운관 206-B호, 02) 961-0991, [khuwriting@khu.ac.kr](mailto:khuwriting@khu.ac.kr)
- 명사 초청 특강 박 준 시인, ‘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11월 1일(목) 오후 3~4시, 오피스홀 대회의실(51호)

주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주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글쓰기센터

## 2018 제8회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 경진대회

## 대회 개요

본 경진대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기획 그리도 보고서, 발표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한상을 선정하여 포상하여 주목

- 창의적이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제안한  
-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문은 신청기술 조사를 통해 계획된 아이디어  
- 도모된 아이디어는 성과를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 창업/사업화하기 위한 내용 제시

\* 최소 2명 이상 최대 5인이며 인원이 험하고 팀워크를  
\* 아이디어에 넘는 유익한 저작 혹은 유익한 방법 및 아이디어가  
\* 모두 가능(공연, 사회/경제, 자원/과학, 예술, 디자인 등). 단,  
\* 사회적인 통념상 배제작한 것 이어야 함

신청 기관은 신청자의 험과 팀워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

- 대상: 1팀(50만 원)  
- 최우수상: 1팀(40만 원)  
- 우수상: 3팀(30만 원)  
- 장려상: 3팀(20만 원)

접수 방법

- 지도교수선정: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교수, 강사)를 선정

- 접수 기한: 2018년 9월 21일(금) ~ 10월 29일(월) 15:00까지

- 접수 서류: 접수인원(\*.hwp) (신청서는 신청인 및 지도교수)

- 서류 양식: 한글파일(\*.hwp) (신청서는 신청인 및 지도교수)

- 서류 및 도장 후 소전 파일을 추려주세요

- 제출처: [ipeec@khu.ac.kr](mailto:ipeec@khu.ac.kr) (신청서 양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  
<http://ipeec.khu.ac.kr> 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자식창업교육센터  
(TEL : 031-201-3511-2, E-mail : [ipeec@khu.ac.kr](mailto:ipeec@khu.ac.kr))

접수일  
내용

10월 29일(월) 서류접수 마감 E-mail 접수

10월 31일(수) 서류접수 통과자 발표 개별 E-mail 통보

11월 4일(수) 본선발표 PPT, 구두발표

11월 9일(금) 최종발표 및 평가 흥미지

내용

내용